

退·栗 文學思想의 기본방향**

—理想軸 對 現實軸—

崔 信 浩*

I.

「詩言志」란 『尙書』의 말이다. 「志」는 「마음이 흘러간 바」, 또는 「마음이 지향한 바」의 뜻이다. 그것은 반드시 시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철학이나 문학 전반이 다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 어느 방향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철학이나 문학의 방향축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그 방향을 크게 상하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상향축을 존중한 사람을 理法論者라 할 수 있고, 하향축을 존중한 사람을 현실론자 또는 情感論者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道學者들은 모두 理法論者들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여기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현실 쪽에서 理法을 본 사람도 있고, 理法 쪽에서 현실을 본 사람의 경우가 그것이다. 전자를 이상주의론적 道學者로, 후자를 현실주의론적 道學者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理法 ⇔ 現實

* 전 성심여대 한문교육과 교수(작고)

** 제2회 동양문화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주자학과 한국유학』(1980) 게재논문

이것은 화살표 쪽이 강조될수록 반대쪽이 강화되는 역학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다 같은 도학자이지만 어느 쪽에서 출현했느냐에 따라 도학의 성격은 물론이지만 문학관도 달라지기 마련일 것이다.

退·栗의 사상과 문학은 浩瀚하여 한모퉁이만 보고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앞으로의 작업을 위한 탐색 행위로서 우선 退·栗의 기본방향은 무엇이나라는 조그마한 해답을 내려본 것이다. 필자는 그 해답을 위해서 미리 이상축과 현실축이라는 잣대를 마련하였음을 밝혀 둔다.

II.

먼저, 自守와 兼善이라는 측면에서 퇴계와 율곡이 지향했던 방향축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自守는 용어 그대로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다. 정치현실에 들어가기 전에 정치를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몸가짐과 마음을 닦아가는 경지라 할 수 있다. 도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우주론, 인성론, 실천윤리라는 체계와 순서에 접하게 된다. 우주 원리를 궁구하고 그것을 인성에 접합시켜서 수양을 펴간다. 兼善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이 모두 착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른바 실천윤리 또는 爲政의 경지다. 그런데, 도학자에 따라서는 自守에 경도된 사람도 있고, 兼善을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각도에서 퇴계와 율곡이 좌표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퇴계의 「陶山雜詠記」를 보면 퇴계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아! 나는 불행하게도 늦게 태어난 시골뜨기이므로 질박하고 고루하여 듣는 것이 없으면서도 산림을 돌아보면서 그곳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일찍 알았다. 중년에는 망령되어 세상길에 나아가 바람과 티끌이 뒤덮인 곳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였다.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의 죽을 뻔 했다. 그 뒤에 나이는 더 들어가고 병은 더욱 깊어졌으며 행실은 더

욱 어려워지고 보니 세상은 나를 버리지 않지만 나는 할 수 없이 세상을 버려야 했다. 그래서 비로소 짐승우리나 새조롱에서 벗어나 발두둑에 몸을 누이니, 앞에서 말한 산림의 즐거움이 뜻밖에 내 앞에 놓인다. 그러므로, 내가 묵은 병을 고치고 깊은 시름을 풀면서 궁색스러운 늙은 시절을 편안히 보낼 것을 여기를 버리고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그러나, 옛날에 산림을 즐겼던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었다. 玄虛를 그리워하고 高尚을 섬기면서 즐기는 사람도 있고, 도의를 기뻐하여 심성을 기르면서 즐기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차라리 뒤의 것을 위해서 스스로 힘을 쓸지언정, 앞의 것을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겠다.²⁾

위의 「陶山雜詠記」 일부에서도 퇴계의 심경은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산림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길에 나아간 것을 「망령되다」는 표현을 썼다. 세상길을 『짐승우리과 새조롱』에다 비유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세상을 버린다고도 했다. 그러나 은둔만은 반대했다. 오직 산림을 찾아든 것은 도의를 기뻐하고 심성을 기르면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라 했다. 여기에서만도, 퇴계의 인격을 찾아볼 수 있다. 현실적인 기욕을 捨離한 高朗明澈한 인격이 부각된 것이다. 理法詩란 이러한 인격의 산물인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정감을 그대로 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틀에 의해서 여과하거나 어떤 절대좌표를 향해서 완성해 가는 문학 형태다. 사장파들의 시처럼, 章句를 다듬어서 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과하고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시는 탄생되는 것이다. 그것은 도의를 기뻐하고 심성을 기르는 데서 시작하고 성숙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

2) 退溪全書. 권3 「陶山雜詠並記」

嗚呼. 余之不幸 晚生遐裔 樸陋無聞 而顧於山林之間 夙知有可樂也 中年妄出世路 風埃顛倒 逆旅推遷 幾不及白返而而死也 其後年益老 病益深行益躓 則世不我棄 而我不得不棄於世 乃始脫身樊籠投分農畝 而向之所謂山林之樂者 不期而當我之前矣 然則余乃今所以消積病 豁幽憂 而晏然於窮老之域者 舍是將何求矣 雖然 觀古之有樂於山林者 亦二有焉 有慕玄虛 事高尚而樂者 有悅道義 頌心性而樂者 由前之說 則恐或流於潔身亂倫 而其甚則與鳥獸同群 不以爲非矣 由後之說 則所嗜者糟粕耳 至其不可傳之妙 則愈求而愈不得 於樂何有 雖然 寧爲此而自勉 不爲彼而自誣矣.

에, 성숙한 理法詩는 時空에 관계없이 항상성과 항구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至高至心의 예술성을 가지게 된다. 2,000여수에 이르는 퇴계시는 대부분 그러한 인격과 분위기로 차 있다. 직접적으로는 理語詩와 理趣詩도 있지만, 심성도야를 통해서 얻어진 高朗明澈한 인격의 발산으로 이뤄진 시들로 짜여 있는 것이다. 言志, 述懷, 山水, 詠物, 感事 등 시의 갈래는 많지만 어느 것이건, 총명한 직관과 원숙미가 담기지 않은 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여기 「雪月竹」이란 시를 보겠다.

옥같은 눈가루 차갑게 누르고,
 얼음 수레바퀴같은 달은 멀리 비친다.
 이에 괴로운 절개 굳음을 알겠거니,
 돌이켜 빈 마음 깨끗함을 깨닫겠노라.³⁾

눈 덮인 달밤의 대를 상상해 볼 일이다. 起句와 承句는 눈을 이고 있는 대나무에 달빛이 비쳐 있는 景을 그렸고, 轉句와 結句는 작자의 정을 그렸다. 총체적으로는 情과 景이 일체가 되어 있다. 원래 情景이란 물아가 일체를 이룬 상태를 말한 것이다. 차갑고 순결한 눈, 멀리 비친 달빛, 속이 빈 대, 이것들은 순결하고 숭고한 미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작가의 표상이기도 한 것이다.

다음은 퇴계가 가장 좋아하는 꽃으로 매화를 들 수 있다. 「溪齋夜起對月詠梅」란 매화를 읊은 시를 소개한다.

君玉山 머리에 제일 신선,
 얼음같은 살갗 눈같이 흰 빛 꿈 속에 고왔다.
 달 아래 찾아 와 서로 만나는 곳에
 완전한 신선 풍채 한 번 살짝 웃는구나.⁴⁾

3) 退溪全書. 권3.

玉雪夜堆壓 水輪廻映徹
 從知苦節堅 轉覺虛心潔

起句와 承句는 매화의 청순 고결한 모습을 묘사했고 轉句는 매화를 대하는 기쁨이고 結句는 작가와 매화가 한데 조화되는 것이다. 매화의 청순고결은 곧 작자의 청순고결이었다. 이러한 시들은 작자의 높은 인격이 아니고서는 지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율곡의 인식세계는 퇴계와는 다른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그것은 自守와 兼善을 논한 자리에서 잘 밝혀 놓았다. 먼저 율곡은 自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학자가 벼슬하지 않는 것은 시대가 옳지 않기 때문도 아니요, 은둔이 좋다는 것도 아니다. 진실로 학술이 부족한데, 功業부터 먼저 베풀면 서투른 솜씨로 큰 工匠을 대신하여 制裁하는 것 같아서 손을 다치기가 쉬운 것이다. 빛을 감추고 스스로를 지켜, 그릇을 간직한 다음에 쓰기를 기다림은 자벌레가 굵힘으로써 뽕(伸)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⁵⁾

이상에서만 보아도, 自守에 대한 율곡의 인식을 알 만하다. 퇴계처럼 도의를 기뻐하고 심성을 기르고 즐거워하여 자연으로 물러난 것은 아니었다. 율곡은 서투른 대목이 아니라, 솜씨있는 큰 대목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자벌레가 움추렸다가 크게 뽕(伸)을 발휘하듯이, 보다 큰 수완과 경륜을 펴기 위해서 현실에서 자연으로 잠깐 물러나 수양을 쌓겠다는 것이다. 퇴계처럼 자연과의 합일이 아니라 경륜을 펴기 위한 수련장으로서의 자연을 인식한 것이다. 율곡의 사회인식은 兼善論에서 더욱 잘 나타나 있다.

4) 同上 권5.

群玉山頭第一仙 氷肌雪色夢娟娟
起來月下相逢處 宛帶仙風一粲然

5) 栗谷全書. 권15. 雜著2. 論臣道.

若學者之不仕 則非爲時之不可也 非爲隱之可尙也 誠以學術不足 先施功業 則代大匠斲鮮不傷手 故韜光自守 藏器待用 天蠶之屈以求伸也 古之儒者 多於是乎從事焉.

항상 나라를 걱정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진심으로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보호하여, 順境과 역경을 가리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행하되, 비록 정도의 차는 있을지라도 끝까지 사직을 편안하게 하려는 자는 충신이다.⁶⁾

이것은 퇴계가 한사코 현실을 버리겠다고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율곡이 얼마나 현실인식에 투철하고 적극적인 인물인가를 알기에 족하다. 그러기에 율곡은 『眞儒』가 무엇인가를 힘주어 말한 것이 있다.

이른바, 眞儒란 것은 벼슬자리에 나아가면 일가의 도를 행하여 백성들이 태평을 누리게 하고, 관직에서 물러나면 온 세상에 교화를 베풀어 학자로 하여금 큰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관직에 나아가 도를 행함이 없고, 관직에서 물러나 가르침을 베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비록 진유라 할지라도 나는 믿지 않는다. 箕子 이후에 본받을善治가 없으니 이것은 나아가 도를 행한 자가 없었던 것이요, 東人의 저서에는 의리에 밝은 자를 볼 수 없으니, 이것은 물러서서 교화를 베풀지 않는 자가 없었던 것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헛소리로 옛날 사람을 무고(誣)한단 말인가.⁷⁾

여기에서 율곡의 현실인식의 좌표는 더욱 뚜렷해졌다.

율곡의 이러한 현실인식은 퇴계와는 다른 문학세계를 나타내 보이기도 했다. 퇴계의 시적 정서는 理法쪽으로 이행해 가면서 승화되었지만, 율곡의 경우는 현실적 정감을 살릴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이다. 「寄精舍學徒」란 시를 예로 들어 보겠다.

6) 同上

惓惓憂國 不顧其身 苟可以尊主庇民 不擇夷險 盡誠行之 雖於正道 小有出入而終始以安社稷爲心者 忠臣也.

7) 同上. 論東方道學不行.

夫所謂眞儒者 進則行道於一時 使斯民 有熙皞之樂 退則垂教於萬世 使學者得天寐之醒 進而無道可行 退而無教可垂 則雖謂之眞儒 吾不信也 箕子變夷之後 更無善治之可法 則是進無行道者矣 東方所著之書 未見深明乎義理 則是退無垂教者矣 吾豈妄言以誣百代之人耶.

마음은 盤水와 같아 간직하기 어려운 것,
구덩이에 빠지고, 구렁텅이에 던져짐도 눈깜박할 사이로세.
친구들에 부탁하노니 굳게 지켜서,
번거로운 세상 속이라도 버티고 물러서지 마소.⁸⁾

이것은 精舍學徒들에 대한 격려를 나타낸 시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구덩이에 빠지고 구렁텅이에 던져짐」, 「번거로운 세상 속」 등의 시어들은 당시의 시세를 잘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앞에 인용한 『眞儒論』의 정신을 그대로 부각시킨 시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滿月臺」란 시를 보겠다.

말에 내려 가시 발을 헤치고,
높은 臺에 올라 西面을 바라보니 허허롭구나.
구름 자욱한 산은 외로운 새 날아가는 저쪽에 솟아 있고,
백성 사는 곳은 옛 도읍 황폐한 나머지로다.
무너져 버린 섬돌에는 수풀만 우거지고,
喬木은 그림자만 앙상하구나.
저녁별이 삼각산에 비치니,
저기가 바로 임금 계신 데라 손짓하였세라.⁹⁾

이 시는 물론, 망해버린 옛 도읍을 보고 허허로운 심경을 읊은 것이다. 그러나 삼각산 저쪽의 서울에 계신 임금과 연결시킴으로써, 현실인식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다른 시인들처럼 단순한 임금에 대한 사모의 정이 아니라, 어지러운 현실과 사직의 운명에 대한 깊은 우수가 서려 있다.

율곡의 이러한 현실인식은 다같은 도학자이면서도 퇴계와는 다른 좌

8) 同上. 1卷. 賦詩

心如盤水最難持 墮堦投坑在霎時
爲報僉賢持守固 世紛叢裏卓無移

9) 下馬披荊棘 高台四望虛 民物故都餘 危砌依林廢 喬松落影疎 斜陽昭三角指點是王居

표를 형성한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퇴계는 현실쪽에서 理法을 본도학자이기 때문에 인간적 정감과 현실인식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茶山같은 實學期 시인에게 맥락이 이어져서 성숙되었다.

III.

지금까지 언급해 온 退·栗의 양면성은 그들의 철학 체계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 退·栗의 철학이 곧 그들의 문학사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문학사상의 방향만은 철학의 방향과 같이 했을 것으로 믿는다.

퇴계는「理야말로 極尊 無對하다」¹⁰⁾라는 표현을 썼다. 또 「理는 귀한 것이고 기는 천한 것이다.」¹¹⁾라 하기도 했다. 이것만 가지고도 퇴계의 기본좌표를 알 만한 것이다.

이에 비해서, 율곡은 「理는 無爲요, 氣는 有爲다. 故로 氣發而理乘之다」¹²⁾라 표현했다. 퇴계가 極尊 無對라고까지 한 理를 율곡은 지극히 무력한 것으로 貶視해 버린 것이다. 理는 이름만 있는 관념적인 존재일 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다. 율곡은 오직 氣로써 일체 우주의 변화와 발전을 설명한 것이다. 退·栗의 이러한 철학적 視點은 문학론 측에서도 지대한 관심이 된다. 理를 지향하면 이상주의 내지는 理法論의 문학 형태가 되고, 氣를 지향하게 되면 정감 내지는 현실인식의 문학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양자의 이러한 우주론적 차이는 인성론이나 심리론에서까지 차이를 나타냈다.

퇴계의 기본 체계는 이기호발론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理發而氣乘之와 氣發而理乘之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인성론도 本然之性과

10) 退溪全書 권13 答李達 李天機

11) 同上 권12 與朴澤之

12) 同上 권10 答成浩原

理無爲而氣有爲 故氣發而理乘

氣質之性の 둘로 나뉘, 본연지성은 理의 發이요, 기질지성은 氣의 發이라 했다. 또, 心도 道心과 人心의 둘로 나누어 道心은 理의 發이나, 인심은 氣의 發이라 했다. 그것은 四七論에서도 마찬가지였다. 四端은 理의 發이요, 七情은 氣의 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理는 尊한 것이고, 氣는 賤한 것이라는 理尊賤氣의 측면에서 보면, 理의 發인 본연지성과 道心과 사단은 귀한 것이지만, 氣의 發인 기질지성과 人心과 칠정은 천한 것이 되어 버린다.

퇴계의 이러한 체계에다 문학을 방향지워 본다면, 여기에는 理法論이 존중되고 기질과 인심과 칠정을 바탕으로 한 情感論은 소홀하게 될 것이다. 理法의 체계에서는 約情遂性이라는 정화작업 내지는 여과작업이 따르기 때문이다. 理法論者들은 처음부터 인심의 발현이나, 칠정의 발현인 진솔한 인간적인 정감은 중시하지 않는다. 그들도 일단은 정감이란 인심과 칠정의 발현인 것은 믿지만, 그것은 善과 惡과 美와 醜가 혼잡해 있으므로, 그것을 어떤 여과장치나 절대규범을 통해서 걸러져 마침내는 純感이나 절대미에 逍遙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절대축이 天이요, 자연이었다. 理法論者들은 처음부터 인간의 머리 위에서 작용하고 있는 天의 제어와 助力을 예상한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발달 가능의 능력을 받고, 다시 하늘의 제어와 助力을 얻어서 그 가능성을 완성해 간다고 믿는다. 그것이 곧 天과 人이 합일해 가는 과정이었다. 理法論者들은 우주만물의 궁극적 근원이라 믿는 태극을 「천지만물의 理」라 규정함으로써, 거기에 맞춰 합리적인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논리성은 정치나 윤리는 물론이지만, 문예미학에도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다.

율곡도 도학자인 이상 도학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앞서서도 이미 지적한 바이지만, 퇴계와는 지향점이 달랐던 것이다. 율곡은 우선 퇴계의 理氣互發說 중 氣發而理乘만을 인정함으로써, 인성론과 심리론, 또는 四·七론의 체계가 퇴계와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곧 율곡은 理의 發을 부인함으로써, 퇴계가 본연지성과 도심과 칠정 속에 포괄시켜 버렸다. 기질지성 외에 본연지성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칠

정 외에 사단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인심 외에 도심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들을 모두 吾心の 發로 묶어 버렸다. 율곡은 吾心の 發이 곧 천지의 化요, 천지의 化가 곧 吾心の 發임을 믿는 것이다. 율곡은 이 점을 가장 힘주어 강조했다. 다음이 그것이다.

天地之化는 곧 吾心の 발현이다. 만약, 천지의 化에 理化者와 氣化者가 있다면, 吾心도 또한 마땅히 理發者와 氣發者가 있어야 한다. 천지에 이미 理化와 氣化의 름이 없는 즉 吾心에도 理發과 氣發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만약 吾心이 天地之化와 다르다면 나의 알 바가 아니다.¹³⁾

이렇게 되면, 퇴계의 체계에서 貶視되었던 기질지성과 칠정과 인심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 이것은 철학사상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문학사상의 변화도 된다. 인간의 기질을 인정하고 정감을 인정하게 되면, 개성과 情感軸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情感文學은 세상의 昇降에 따른 여러 가지 체험과 진솔한 인간이 정감을 담을 수 있는 문학형태다. 理法論的 문학세계는 시공을 초월해서 항시 괴리가 없으며, 항상성과 항구성을 유지해 주는 본원적 美로서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규범성이 강조된 나머지, 시인의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자유의지와 선택의 결여가 흠으로 지적될 수 있다. 문학이란 선형적 차원에서 생명존재를 의식하는 일면도 있지만, 규범성에 저항해 가면서 그것을 끝없이 수정해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행각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한 행각은 우선 기질지성과, 칠정과 인심이 규범에서 해방될 때 가능한 것이다. 율곡은 그러한 길을 터 준 사람이다. 그러기에 율곡은 인심의 發을 천지자연의 化에까지 높이기는

13) 同上

天地之化 卽吾心之發也 天地之化 若有理化者氣化者 則吾心亦有理發者氣發者矣 天地旣無理化氣化之殊 則吾心安得有理發氣發之異乎 若曰吾心異於天地之化 則非愚之所知也

했지만 결코 인간은 천지자연과 같이 완전할 수도 없고 公平無私할 수도 없는 그저 인간적인 바탕에서 파악하였다.

그것을 「혈기와 지각의 心」이란 것으로 구분하였다. 천지자연에는 그것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다. 혈기란 물론 육체와 두뇌를 말한 것이다. 율곡은 「<천지자연은 혈기와 지각의 心>이 없기 때문에 공평무사할 수 있다.」란 표현을 쓴 것을 보면, 혈기와 지각의 心을 가진 인간은 높은 지성과 지각의 능력도 가졌지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욕구는 물론이요, 선악과 美醜 등을 다 갖춘 존재로 파악한 듯하다. 혈기란 단어가 그것을 함축할 것이다. 율곡은 만 자리에서 「대체로 志가 움직이고 氣가 움직일 때는 선과 악을 겸하게 된다.」¹⁴⁾라 표현한 것이 있고, 또 「식욕과 색욕과 냄새와 맛에 대한 욕심도 천성이다.」¹⁵⁾라 표현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율곡은 천지자연 앞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확인하려고 했다. 그것은 혈기를 가진 육체인간이란 사실과, 자유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도 있고, 또 그 생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도 아는 지각인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율곡의 심학은 퇴계처럼 約情遂性이라는 지극히 윤리적인 심성론보다는 情을 주축으로 한 현실인식에서 파악했으며, 윤리적 측면보다는 심리적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파악했음을 볼 수 있다.

A. 모름지기 心·性·情·意는 다만 一路로서 각각 경계가 있음을 안 연후에라야 가히 어귀어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어찌 一路라 이를까? 心の 未發을 性이라 이르니, 已發은 情이 되고, 發한 뒤에 商量함은 意가 된다. 이것이 一路이다. 어찌 각각 경계가 있다고 이를까? 心の 寂然不動한 때는 性の 경계요, 感而遂通한 때는 情의 경계이며, 소감으로 말미암아 紬繹商量하는 것은 意의 경계가 되니, 다만 一心으로서 각각 경계가 있는 것이다.¹⁶⁾

14) 同上 권32 語錄下
大抵動志動氣 皆兼善惡爲得

15) 同上 권31 語錄上
食色臭味亦天性

B. 情과 意와 志는 다 마음의 發한 것인데, 유독 마음은 性과 情을 통괄한다고 말하고, 意와 志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아마 意와 志는 다 情이 나온 뒤에 작용하는 것이므로, 情을 말하면 意와 志는 그 가운데 포함된 까닭인가? 그렇다.¹⁷⁾

나타난 바와 같이 心을 性·情·意·志의 구조로 파악하였다. 이것은 心學的 측면에서도 훌륭한 제시가 되지만, 문예심리학적 측면에서도 깊은 시사가 된다.

性·情·意·志의 구조에서 性은 ① 원리요 표준이며, ② 吾心속에 내재한 의식의 근원이라 할 수 있고, 情은 이름 그대로 感而遂通하는 정감이며, 체험적 사실로 정립해 볼 수 있다. 그리고 意는 그 체험된 사실이 옳은가 그른가, 또는 아름다운가 추한가를 紬繹商量한 경계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의 표준은 물론 性이다. 性은 원리이자 표준이기 때문이다. 情은 발현일 뿐, 가치기준이나 미의 기준으로 紬繹商量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意의 경계의 分이다. 意字는 <心+日+立>의 구조로 짜였다. 마음이 발현한 것을 세우는 것이다. 발현된 情을 性이라는 기준을 좇아서 올바르게 세운다는 뜻이다. 그래서 心이 一路이면서 각각 경계를 가지는 것이다. 志는 지향이다. 그런데 지향은 두 가지 방향이 있게 된다. 性則理라는 주리론자들의 방향과, 性是氣라는 주기론자의 방향이 그것이다.

주리론자의 방향은 언제나 보편적이고도 근원적인 또는 권위주의를 좇게 된다. 여기에는 각 개인의 특수성이나 개성 또는 현실성이 약화된다. 문학의 경우는 권위주의적인 유형미나 규범미가 강조되는 것이다.

16) 同上 권14 雜著雜記

須知心性情意 只是一路而各有境界然後 可謂不差矣 何謂一路 心之未發謂性 已發爲情 發後商量爲意 此一路也 何謂各有境界 心之寂然不動時 是性境界 感而遂通時 是情境界 因所感而紬繹商量爲意境界 只是一心 各有境界

17) 同上 권31 語錄上

問情與意志 皆心之所發 而獨曰心統性情云者 皆以意志皆用事於情出之後 而言情則二者亦在其中故耶 曰然

이 경우, 意는 그것이 얼마나 윤리적이며, 보편적이냐를 紉繹商量하게 된다. 志도 그러한 방향을 지향하게 된다.

그러나 性을 氣로 파악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때의 性은 개별성과 특수성, 그리고 吾心 속에 내재한 의식의 근원으로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情의 경계에서 나타난 체험적 사실은 意의 경계에서 내재한 의식(性)과 만나게 된다. 여기에서 이룩된 紉繹商量은 권위주의를 전제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관련된 것이다. 체험이란 변화축이다. 그것은 환경과 시대의 승강에 따라 수시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체험은 자아 속의 의식과 결합되면서 끝없이 새 좌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권위주의에 저항하면서, 새 차원의 삶을 열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志는 새 삶의 지향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퇴계는 性을 理로 본 주리론자이고, 율곡은 性是氣를 주장한 주기론자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보면 철학적 측면에서도 퇴계의 이상주의적 지향과 율곡의 현실인식의 지향은 분명히 부각되었다 할 것이다.

IV.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退·栗의 전반적 사상을 해부해서 그것을 비교 도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향하는 큰 흐름만을 고찰한 것이다. 또 그들이 다 같이 도학자인 만큼 상이한 요소보다는 동질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문학사는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흘러가는 문학의 역사라 믿는다.

성리학의 본질적인 궤도는 화담에서 시작하여 퇴계, 율곡을 거쳐 많은 문하생을 배출하다가 실학기에 와서 쇠퇴해 버렸다. 그런데, 화담에서 실학에 이르는 동안 그 밑바닥에는 무엇인가를 향해서 흘러가는 지

향점이 있었다고 본다. 그것은 현실인식으로의 이향과정이었다. 그것은 드디어 실학기에는 민중과 만나게 된다. 그 현실지향적인 축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갔다. 花潭<退溪<栗谷<實學期<近代<現代의 순이다. 화담은 전혀 현실참여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철학과 문학도 그렇게 짜여 있다. 이에 비해서, 퇴계는 현실참여도 했다. 그의 철학과 문학도 화담에 비해서는 현실성이 강하였다.

원래, 理氣의 구조는 불교의 空觀에 보인 기본 시각에서처럼, 현실에 대한 일체 부정으로 짜여진 것은 아니었다. 理氣철학은 오히려 그러한 결합을 극복하여 理法과 현실, 또는 상하의 去來 관계를 소통시켜 놓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理法과 현실은 다같이 중시되고, 상하의 순환관계에서 운동은 괴리없이 지속될 수 있게 한 철학체계였다. 다만, 퇴계는 上을 지향하는 요인이 컸다면, 율곡은 下를 지향하는 요인이 컸을 뿐이다. 이에서 저절로 퇴계는 이상주의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율곡은 현실인식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율곡의 이러한 체계는 실학기 시인, 특히 다산 같은 사회시인으로 이어졌다. 실학기에서는 사회인식이 극도로 높아진다. 이 시기에는 理法軸이 제거되고, 現實軸만으로 사상의 재정비가 이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대의 맹아는 실학기에 재정비된 사회인식에서 싹튼 것이었다. 그것은 다시 현대에 이어지면서 물질문명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각 시대마다의 특성과 그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함수관계를 잘 부각시킨다면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문학사상의 맥락을 찾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본고에서는 退·栗의 방향축만을 고찰하였다.